국토교통부 | 춘천시 | 조운소양 도시재생뉴딜사업

조운동네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격월간 소식지 2023년 12월
요선동 새명동 옥천동 지하도상가 제10호

좋은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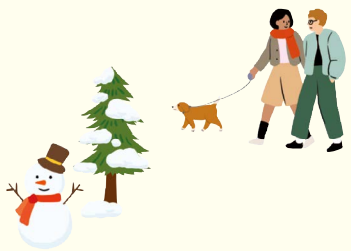


조운동네 문화가 숨쉬는 동네



조운동네 좋은소식

2023년 12월
제10호



창간일 2022년 4월 15일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기획 이예은(코디네이터), 유명화
일러스트 하고고
사진 이보영(스튜디오 록)
디자인 쿠담
제작 여름 출판사

발행인 한영호(센터장)
발행처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지하33, 다84호
033-250-4938

Contents

01 조운 게시판

02 사는 사람 조운 사람
역시, 인생엔 친구가 있어야지!

08 同同街 마주하기
조운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2023 봄-여름-가을-겨울



12 우리도 멋지게
일본의 쿠로카베 스퀘어,
지켜야 할 것과 만들어야 하는 것

14 우리는 즐겁게
지하도상가가 아름다워지는 시간

16 좋은 소식

17 조운人 한마디



상상 한 겨울

기다렸던 크리스마스

12월 24일(일)~12월 25일(월)
13:00~17:00
춘천 지하도상가
공연·체험·전시·이벤트



오랜 세월과 함께
익어온 우정을 나누는
요선동 친구들

조성미
시민기자

역시,
인생엔 친구가 있어야지!

날씨가 쌀쌀해지면 두꺼워지는 옷만큼이나 마음은 더 허전해지는 것 같다. 겨울에 유독 쓸쓸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는 노릇. 이럴 때 맘 통하는 친구와 만나 따뜻한 밥 한 끼나 차를 나누면 그런 몸과 마음이 사르르 녹는다. 특히나 서로 공유하는 추억이나 생활이 많다면 마음의 온도는 쑥 올라간다. 요선동 거리에서 수십년 우정을 지켜온 친구들과 지하도상가에서 끈끈한 만남을 이어가는 친구들의 겨울은 그래서 춥지만 따뜻하다.

젊은 시절, 그들의 요선동 거리는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는 활어처럼 활기 넘치는 곳이었다. 아침나절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은 시장통을 바삐 왔다 갔다 하며 먹을거리를 사고 옷이나 신발, 가방도 구경하고, 퇴근길에는 술 한잔 기울이기도 했다. 또 열심히 일하던 젊은 청춘도 많았다.

이강수, 김남우를 비롯한 친구들 역시 활기 왕성한 나이에 요선동에서 만나 사회생활을 하고 가족을 꾸리며 노년에 들어선 지금까지 만남의 연을 이어왔다.

세월의 흐름은 요선동 거리만 바꿔놓은 것이 아니라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꾸리고 살아온 사람들도 바꾸어 놓았다. 이제는 모두 현역에서 은퇴하고 여가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지만 매주 한 번씩은 요선동에서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난다.



이강수(새거리번영회 간사)

우리는 모여도
매번 요선동
이야기만 하지요

번영회에서
애쓰는 만큼
효과가 나오지 않아
아쉬워요



김남우(새거리번영회 회장)

예전에는 모두 젊었으니 여름마다 한 번씩은 계곡에 나가 발도 담그고, 고기도 구워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또 손님이 뜸한 시간이면 서로의 가게에 들러 이야기도 나누고, 저녁엔 술잔을 기울이며 떠들고 웃으면서 하루의 고되고 힘든 일을 함께 씻어버리곤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식사를 하며 안부를 확인하고 즐거운 대화를 나눈다. 함께한 시간만큼 서로 가족 이야기를 묻기도 한다. 첫 아이 탄생의 기쁨을 나누던 사이였는데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다시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한다.

지금도 이들의 대화에는 요선동이 단골로 등장한다. 도시락 천 개 주문도 완벽하게 납품하여 신뢰를 얻었던 음식점 사장의 이야기나 하루 매출로 직원들 월급을 주었다는 구두점 사장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설처럼 들린다. 요선동의 화려한 시절로 복귀하기를 꿈꾸며, 그 옛날처럼 골목골목이 북적북적 살아 있는 곳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낡은 건물의 위험성이나 주차 문제 등 현재 요선동의 문제점을 걱정한다. 또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가번영회 활동을 하며 가능한 한 많은 힘을 보태고자 한다.

최근 요선동에는 젊은 청년 점주들이 개성 있는 가게들을 조금씩 운영하고 있고, 요선동 청년회를 만들어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기에 앞으로는 이들이 자신들의 뒤를 이어 요선동을 잘 이끌어나가길 기대한다.



정보만(새거리번영회 부회장)

주차장을 비롯해
우리 동네가
잘 정비되었으면 하죠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이 만남이
변함없으면 좋겠습니다



한만수(새거리번영회 총무)



자매처럼 마음이 척척 맞는 지하도상가 친구

지하도상가의 아침은 넉넉한 커피 인심으로 향기롭게 출발한다. 이웃하고 있는 상가 주인장들끼리 밤새 닫혀 있던 가게 문을 열고 나면 조회라도 하는 모양으로 삼삼오오 커피를 들고 이야기를 나눈다.

유난히 사이가 좋아 자매처럼 보이는 이들이 있다. 지하도상가의 '찐' 친구인 권미영, 임연복 씨다. 그야말로 서울 패션의 1번지였던 동대문 밀레오레에서 오래 의류사업을 하다 지난겨울 춘천 지하도상가에서 새롭게 시작한 '히어로'의 임연복 씨. 서울보다 낯설어진 고향의 새 일터에서 반갑게 손을 건네준 이가 '노엘'의 권미영 씨다. 서로 성격이 좋다고 칭찬하는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음악이다. 임영웅의 노래를 둘 다 정말 좋아하기에 더 말이 잘 통했는지도 모른다. 노래 이야기도 하고 사업에 관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다 이젠 정말 친구가 되었다.

"성격이 좋아요. 여럿이 모이면 서로를 잘 화합하게 해주고. 성격이 말랑말랑해요." "언니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라고 둘은 말한다.

매출이 줄어 의기소침할 때 서로를 기운 나게 해주고, 손님 때문에 맘이 상하면 넘어진 상처에 호~ 하고 불어주는 엄마처럼 격하게 동감해준다.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맛있는 반찬의 비법을 공유하기도 한다. 지하도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오전에는 각자 일을 하고, 오후 무료한 시간이 오면 실컷 웃고 떠들며 기분전환을 한다.

앞집, 옆집이 한마디씩 거들다 보면 지하도상가의 문제점이 자연스레 등장한다. 먹고사는 중요한 문제니 가끔은 심각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서로 빵이나 사탕 등 간식을 나눠 먹으며 수다를 떤다.

"분수대 주위로 삼삼오오 모였던 아이들, 패션의 거리를 오르내리며 옷, 신발, 액세서리를 고르던 젊은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고.

"언니~ 커피 한잔할래?" "그래, 좋지~" 오늘도 어김없이 커피타임이다. 힘들어도, 커피 한잔에 서로를 생각해주는 '정' 한 스푼이 추가되니 둘이 함께하는 커피 맛은 진짜 끝내준다.



권미영(지하도상가 중앙로 나-01호, 노엘)

우리끼리의
공통분모인
노래와 사업 이야기가
잘 통하죠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손을 내밀면 언제나
밝고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이에요



임연복(지하도상가 중앙로 나-06호, 히어로)

조운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2023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조운소양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려고 설립된 기관입니다. 올해로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요. 2023년에는 '조운위크', '틈새콘서트', '상상 아트 스쿨', '상상 한 여름/겨울'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대학,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 2주년 기념 기획 전시 등의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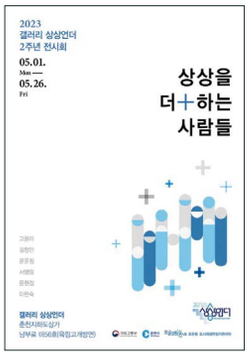


조운위크 봄

4/22~4/23 '조운위크' 시리즈의 첫 번째 이야기로 치어리딩, 드로잉쇼, 마임 등 다채로운 공연과 만들기 체험, 어린이 마켓, 중고서적 교환,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전시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

5/1~5/26 갤러리 상상언더 개관 2주년을 기념하여 입주작가 단체전 '상상을 더하는 사람들' 전시를 열었다.





상상아트스쿨

5/6~6/10 매주 토요일 청소년 문화교육 '상상 아트스쿨'을 진행하였다. 춘천 청소년을 대상으로 댄스·보컬·영상 교육을 운영하였고, 마지막 날인 6월 10일에는 결과발표회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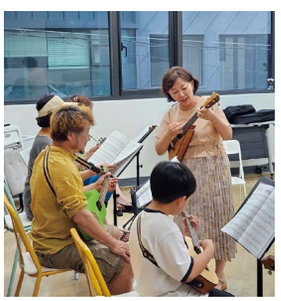


2023 조운·소양동 도시재생대학

6/14~8/9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을 이해하고, 우리 동네만의 사업모델을 발굴하고자 전문가 컨설팅을 받는 등 조합 설립 교육 기반 도시재생대학을 진행하였다.

주민공모사업

6/16~8/27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3팀의 프로그램 '조운하모니 요선우쿨렐레', '천아트, 꽃차 강의', '요선악기장터'를 진행하였다.





틈새콘서트

6/27~8/31 점심시간을 활용한 힐링 버스킹, 틈새콘서트를 매주 화요일·수요일·목요일에 열었다.



상상 그 이상의 댄스

7/12~12/2 매주 수요일 문화교육 '상상 그 이상의 댄스'를 운영하였다. 권역 주민과 상인을 대상으로 라인댄스, 이지댄스 등 안무 교육을 하였고, 마지막 날인 12월 2일에는 발표회를 하였다.

상상 한 여름

7/15~8/5 매주 토요일 문화행사 '상상 한 여름'을 진행하였다. 지하도상가에서 즐기는 피서로 전문 공연 및 주민 참여 무대, 만들기 체험, 스탬프 투어, 인생네컷 포토 부스 등을 준비하였다.





조운위크 여름

8/25~8/26 한 여름밤의 음악회 '조운위크 여름'을 진행하였다. 재즈, 현악 3중주, 칵테일 쇼 같은 감성 가득 공연과 타로, 무알코올 와인 시음 등 청년들의 원도심 방문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조운위크 가을

10/21~10/22 도시재생 페스타 '조운위크 가을'을 진행하였다. 도시재생 사업 홍보관 및 체험, 지역 상인 플리마켓, 디자인 컨설팅, 공연, SNS 이벤트 등으로 구성해 가을 축제를 완성하였다.

상상 한 겨울

12/18~12/28 크리스마스 맞이 지하도상가 문화행사 '상상 한 겨울'을 진행한다. 18일에서 20일에는 점심시간 버스킹을 준비하였으며, 크리스마스이브와 크리스마스(24일, 25일) 당일에는 아카펠라, 재즈 등의 전문 공연과 각종 체험, 이벤트를 실시한다.

2024년에는 조운위크 시리즈, 상상 시리즈를 중심으로 한 대형 축제와 상권 연계 소규모 행사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주민역량강화교육, 버스킹 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에도 조운동네와 함께해요!



사진 출처: 경향신문

멋지게
도시를
재생한 이야기
⑩

일본의 쿠로카베 스퀘어, 지켜야 할 것과 만들어야 하는 것

이예은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



나가하마시에는 까만 벽돌로 지어진 은행 건물이 있어요. 나가하마 구도심의 상징적 건물인 쿠로카베 은행입니다. 일본 시가현에 위치한 도시 나가하마는 일본 물산의 집산지였어요. 중심지에는 점포가 약 700개 있었을 정도였죠. 그러나 1975년부터 교외에 대형 쇼핑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점점 손님이 줄어 중심 시가지가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어요. 10년간 인구수가 15% 감소했고 쿠로카베 은행 또한 철거될 위기에 놓였어요. 까만 벽을 지키려고 앞장선 건 토박이 상인과 주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금을 모아 은행 건물을 사들이고 새로운 문화예술의 도입을 시도했어요.

그들은 유리공예를 선택했어요. 다른 상권에선 볼 수 없는 색다른 아이템으로 차별화를 노렸죠. 유럽 유학에서 직접 기술도 배우고 유리공예 작품도 사와 전시했어요. 또 검은 벽을 이곳 경관의 정체성으로 삼고 골목의 다른 건물도 검게 칠했어요. 버려진 가게들은 박물관과 공방으로, 골목의 자투리 공간은 공원으로 변신했어요.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늘었어요. 4년 만에 연간 50만 명이 방문했어요. 타지로 나갔던 청년들도 고향으로 돌아와 식당을 차리는 등 빈집들은 점차 새 가게로 채워졌죠. 상점 약 300개가 새로 문을 열었어요.

나가하마는 철거 위기에 몰렸던 과거 건물을 보존해 마을의 새 산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만드는 데 완벽히 성공했어요. 애초 유리공예와는 전혀 관련 없는 동네였지만 30년 가까이 유리공예를 지속하자 자연스럽게 유리공예가 그곳의 마스코트로 자리 잡은 거예요. 조운동네에도 이처럼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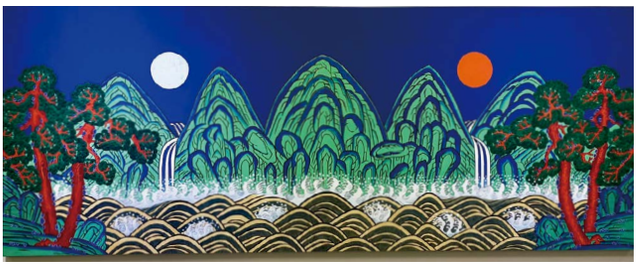
갤러리 상상언더
Zoom In

지하도상가가 아름다워지는 시간

지하도상가에 있는 갤러리 상상언더에서 소양상미회 제2회 정기전 '높은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노닐다 2' 전시를 10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최정윤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볼까요?







Q. 안녕하세요! 소양상미회 제2회 정기전인데, 먼저 소양상미회 단체를 소개해주세요.

A. 궁중장식화를 전수하신 권매화 선생님을 중심으로 여러 사연과 계기로 모여 만든 단체예요.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생이 중심이며 회원은 15명 정도랍니다. 소양은 춘천을 의미하고, 상미(尙美)는 '아름다움을 높이 알리다, 드높이다'라는 뜻이에요.

Q. 전시 주제가 '높은 곳에서 아름다움으로 노닐다 2'이더라고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궁금해요.

A. 전년도 창립전 모토이기도 해요. 아름다운 색채와 함께하는 우리 민화의 기본사상은 '길상'입니다. 희망과 기원과 소원은 언제나 아름다운 높은 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Q. 이번 단체전에서 선보일 작품들을 준비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A. 길게는 2년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짧게는 5개월이 걸린 새내기 회원도 있습니다.

Q. 전시를 보면서 민화의 매력에 푹 빠졌는데요. 민화만의 매력을 설명해주신다면요?

A. 민화는 우리 민족이 그린 모든 그림을 말합니다. 궁중장식화에서 무속화, 불화까지 모두를 말하지요. 부귀영화를 바라는 마음, 자식들의 입신양명을 바라는 마음, 만세에 이르는 건강을 바라는 마음 등 왕족, 양반, 서민들의 생활상이 그림으로 기록되어 왔어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신들의 세계에 도전하기도 한 우리 선조들의 그림이 하나의 역사를 대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 매력을 느낍니다. 지금은 아파트, 자동차, 현시대의 뉴스거리 등 지금 시대에 맞는 민화를 그립니다. 단, 민화의 기본 길상은 배제하면 안 되고요. 그래야 다음 세대가 지금의 민화를 보고 우리 시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Q. 소양상미회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A. '나도 그린다, 당신도 그릴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바쁜 일상, 지치고 힘든 시간 속에서 취미활동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또 다른 '나'를 찾아가고 있음을 느껴요. 이 느낌과 변화를 많은 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상상 한 겨울

12월 24일, 25일 지하상가 소규모 문화공연 〈상상 한 겨울〉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놀러 오세요! 재즈·어쿠스틱 밴드·아카펠라 등 수준 높은 전문 공연과 다채로운 6가지 체험 및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여운 선물들을 받아갈 수 있는 스탬프 투어에도 참여할 수 있고요. 18일에서 20일 점심에는 틈새버스킹도 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3-250-4938

공실 입주 모집

상상언더그라운드 공실 모집이 진행 중입니다. 지하도 상가 빈 점포를 리모델링하여 문화공간, 교육공간 등으로 조성하는 사업이에요. 창작·기획 활동으로 춘천 지하도 상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무료입니다. 12월 말까지 서류 접수가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운동네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문의 033-250-4935

갤러리상상언더 대관 일정

- 12/1~12/15 **권순복 개인전**
- 12/18~12/28 **상상 한 겨울(2023 조운동네 모아보기)**

문의 033-250-4935

안녕하세요~ 청년 인턴!

안녕하세요, 조운동 소식지 독자 여러분! 조운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김고은 인턴입니다. 소식지에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센터와 이별이 코앞이네요. 그동안 제가 약속한 바를 잊지 않으려 다양한 행사에 보조로 참여하고 센터에 소속된 쉼터를 관리하는 등 크고 작은 일에 참여하며 조운동 도시재생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득 안겨준 조운동 덕분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뿌듯함만 가득 남았습니다. 이제 곧 연말인데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운동네 소식을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600여 개의 가게를 품은 조운·소양 도시재생사업 권역.
조운동네에서 일상을 보내는 우리 상인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듣는다.

박민정 시민기자



오전 10시 이전에 '훗'을 방문한다면 신선한 커피에 베이글 한 조각을 덤으로 먹을 수 있어요. 카페 공간에, 카페 메뉴에 취향이 묻어나는 훗은 '오렌지라테, 소금라테' 같은 맛 좋고 멋 있는 젊은 카페예요. 아침 7시 30분부터 커피를 내리기 시작하는 훗은 바닐라빈시럽을 직접 만들어 식감과 향 그리고 맛있는 달달함을 더한다네요.

아침을 좋아하는 카페지기의 독특한 카페, **훗** / 중앙로 32, 104호 / 0507-1377-3505



'두향'은요, 더 부드럽고 더 몸에 좋은 두부를 그것도 매일 아침 만드는 두부 맛집이에요. 3대째 두부를 만들어 지금은 최상의 두부 레시피를 갖고 있어요. 일만 할 줄 안다는 부부가 매일 새벽, 가마솥에 불을 지펴 해양심층수로 두부를 만들고 양구에서 공수하는 시레기를 삶아 다른 두부집에는 없는 두향의 대표 메뉴 '시래기 조림두부'를 만들어요. 정갈하게 만든 반찬이 곁들여지고요. 콩탕과 순두부는 두부의 순수한 하얀 맛에 빠져들게 하지요.

정갈하고 담백하고 부드럽고 고소한 최고의 두부 맛집, **두향** / 시청길 12, 1층 / 033-242-7277



'쉼'은 편하게 오기를 바라는, 그리고 국물의 깊은 맛을 시간별로 계산할 줄 아는 젊은 주인이 운영하는 어묵(오뎅)바예요. 북어(머리)와 무, 고추씨를 비롯한 여러 재료를 넣고 푹 끓여 산뜻하고 칼칼하며 청량한 국물이 끝내주는 곳이에요. 여기에 20여 종의 어묵이 국물과 함께 깊은 맛을 선사해요. 식사로 가능한 메뉴도 있지만, 국물이 진해지고 맛이 깊어지는 저녁이 무르익는 시간대 손님을 쉼은 더 반겨요.

맛이 깊어지는 곳, 어묵 그리고 한잔 술의 **쉼** / 서부대성로44번길 17, 1층 / 0507-1357-3774



옷은 예쁘면, 스타일리시하면 남성복, 여성복 구분이 필요하나요? 여기 패션 디자인 학도가 캐주얼한 멋스러움을 장착한 옷가게를 열었어요. 남녀가 함께 입는 옷이, 깔끔하게 연출하는 옷이, 아름답게 들어맞는 옷이 있어요. 여기에 '춘천상회'는 멋진 코디를 해줘요. 옷 구조가 훤한 젊은 주인이 색감을 추천하고, 스타일을 살펴줘요. 개성 존중은 물론이에요. '춘천상회'는 지하도상가에 다시 젊음과 활기를 불어넣고 있어요.

패션디자이너의 젊은 옷가게, **춘천상회** / 지하도상가 나-8호 / 010-3292-4592



요선동은 보석 같은 골목이에요. 이 골목은 재미있고 분위기가 사랑방같이 친근하고, 옛것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곳이에요." 요선동에서 공부하며 일하는 헤어디자이너가 있는 '핑거루트헤어.' 올해 유월에 새롭게 단장해 문을 연 핑거루트헤어는 요선동스럽게 레트로와 트렌디한 스타일을 자유롭고 조화롭게 연출할 수 있어요.

편해서 언제나 찾는 요선동 헤어숍, **핑거루트헤어** / 서부대성로44번길 22, 1층 / 033-252-8080



'제피'의 제품은 모두가 손에서 시작해 손에서 끝나는, 수작업으로 탄생한 고집스러운 물건들이에요. 제피의 쇼룸은 작업실이자 가죽공예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살롱처럼 꾸며놓은 제피는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가죽공예품이, 기능별로 설정된 공방이 있어요. 가죽부터 스티치까지 가죽공예의 모든 것을 배울 수 있고, 나만의 것을 주문제작할 수 있어요.

핸드메이드의 가치가 드높은 **가죽공방 ZEPHY(제피)** / 서부대성로48번길 22, 1층 / 010-3220-0704



랩카페는 다양한 종류의 샌드위치와 아이스티가 맛있는 곳이에요. 샌드위치에 감자를, 달걀을 듬뿍듬뿍 넣어요. 샌드위치를 튀기기도 해요. 바삭한 샌드위치에 청량한 아이스티라니…. 물론 커피맛도 좋지요. 카페 한쪽에 트렌디한 디자인의 티셔츠 등 패션, 액세서리 소품을 두어 독특함을 찾는 이들에겐 맛과 멋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지요. 랩카페는 모든 메뉴가 신선해요.

샌드위치를 튀기는 아이스티 맛집, **랩(LAB)카페** / 서부대성로48번길 10, 1층 / 010-9911-8760



'카쿠레카'는 덮밥이 주를 이루는 일본 가정식 음식점이에요. 카쿠레카는 숨은 맛집이라는 뜻인데, 여기 음식의 숨은맛은신선함과깨끗함에서 나와요. 프렌차이즈라 레시피는 공유하지만재료는최대한싱싱한것으로, 최대한 깨끗하게 밑손질하는 것으로 맛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카쿠레카의모든메뉴는그냥맛있어요. 스테키동이며 두툼한 베이컨이 올려져 색깔마저 맛있는 베이컨크림우동이며, 치킨에이드도맛있고요. 새명동에맛집 하나가 탄생했네요.

그냥 맛있는 일식덮밥집, **카쿠레카 춘천점** / 시청길10번길 4 / 070-4647-1188



마음을 전하고 싶을 때 푸르름이 살아 있는 꽃, 식물만 한 게 있을까요? 고요하고 맑은 느낌을 꽃에 담아내는 '러브레터'는 꽃의 아름다움과 싱싱함에 온 손길을 기울이는 곳이에요. 꽃과 다양한 화초가 이곳에 원래 있었던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배어 나오는 이곳은 홍차 한잔에 디저트까지 내어줄 것 같아요. 이런 감성도 선물할 수 있는 곳이 꽃집 '러브레터'예요.

빈티지한 감성의 꽃집, **Love Letter(러브레터)** / 옥천길 25-1, 1층 / 0507-1491-1190



일단 육전모듬전이 맛있어요. 파절이에 된장을 곁들여 내니 느끼함이 싹 잡히는 게 아주 맛있어요. 고기도 특수부위로 금방 만들어 따끈따끈하게 내니 다들 입에서 사르르 녹는다고 해요. 김치, 깍두기부터 모든 걸 내 손맛으로 만들어요. 전만 맛있다? 아니에요. 삼겹살도 좋아요. 내 손으로 음식도 가게도 깨끗하게 하니 '골목전집' 전은 맛있을 수밖에요.

우리 집은 육전모듬전에 삼겹살, **골목전집** / 서부대성로48번길 24-1, 1층 / 033-241-0256

오픈했어요

요선동_ 마선생마약국밥 춘천시청점, 아이리스 헤어, 퓨전요리주점 도도, 휴더테이블, 려 블랙

새명동_ 선호두랑파이, 스몰굿커피 춘천명동점, 카츠도, PIKES PEAK, 담터 땡밥